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요인이 실제 정보화마을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기도 세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Impact Analysis about Successful Factors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on its Actual Project

: Focusing on Three Cases in Gyeonggi-do Province

이 현 정**

Lee, Hyun Jung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사례지역의 정보화마을 사업 분석
- V. 결론

정보화마을 사업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운영되어져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축적되어져 있고, 특히 요즘에는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해제 마을은 35곳으로 모든 마을에서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패사례와 관련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5S1A5B5A07043688)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논문 접수일: 2016. 5. 10, 심사기간(1, 2, 3차): 2016. 5. 10~2016. 6. 21 게재확정일: 2016. 6. 21

한 요인들이 지정해제가 이루어진 마을에서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부족한 역량, 지원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마을의 보유 자원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보화마을 사업 이외에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 농촌개발사업은 마을에 인적·물적 자원을 풍족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공유 불가능, 사업간 경쟁 등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타지자체와의 실적경쟁에 따라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마을에 투자 및 우선지원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각 마을마다 각기 다르게 작용하여 사업의 성패에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정보화마을 사업, 지정해제, 사례연구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has been managed for about 16 years since 2001 with the purpose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olving regional information gap and to approach freely and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all citizens. As time passed, related researches were accumulated a lot quantitatively and in particular, more diverse and in-depth researches are conducted through a case study recently. However, there are 35 Appointment Cancellation Villages currently and there is no research focused on failure cases even though every project in these villages was not successful.

Consequently,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outcomes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and analyzed how these factors were influenced on actual projects in the villages with appointment cancellatio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which raises insufficient capacity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its support level has brought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village. Second, possession of resource in the village is a necessary condition not a sufficient condition on operating successful village projects. Third, existing other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esides this project has an advantage to make human and materiel resources affluent but it has a high possibility to bring unprecedented conflicts such as impossibility of index sharing and competition between projects and so on. Fourth, a local government tends to invest and support preferentially on the village with having

a certain level of base depending on performance competi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With this study, positive factors for the results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have different impacts in every village and it affects as a success factor and a failure factor on every project.

□ Keywords: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Appointment Cancellation, Case Study

I. 서론

정보화 사업을 통해 정보화기반 시설과 정보기술 활용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지역간 정보격차, 정보화 불균형으로 인한 정보소외 및 갈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3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조성하고, 동년 4월에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국가적으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정보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행정자치부, 2001; 김유석·박영민; 2006: 3)으로 시행되었다. 2001년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358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전세계 133개 국가 2,900명의 관련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정보화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온두라스, 일본 등에서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2006년에는 세계 전자정부 포럼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에는 UN 공공행정상(PSA: Public Service Awards) 시상식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정보화마을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운영되어져옴에 따라 관련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축적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많은 연구들이 분석방법에 관계없이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들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해제 마을은 35곳으로 모든 마을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렇듯 모든 마을에서 사업이 성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패사례와 관련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왜 정보화마을 사업이 계속되어지지 못하였고 지정해제 혹은 자진반납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성공사례 연구는 사업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다른나라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체험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다른지역에 적용하기에 적실성을 가지는지, 어떤 점을 발전시키고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하는지 등 실제 사업의 역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패사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정해제가 이루어진 마을에서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보기 위해 지정해제가 이루어진 3곳의 마을을 선택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 중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하고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향후 정보화마을 사업의 추진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정보화마을 사업 개괄

우리나라 정보화기술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지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지역간 정보격차는 날로 심화되자 정부는 2000년 1월에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체의 공동 주관으로 강원도 원주 황둔·송계마을, 2000년 3월에는 경상북도 성주 도흥참외마을에 마을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보화수준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관련 관계기관 회의(2001.2.27)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부처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정보화마을기획단을 구성하고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001년 3월 정부는 지역차원에서 추진된 정보화사업을 중앙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으로 재정립하고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2001년 4월에는 지역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동법

제3조).’라는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진행하였다(서진완, 2015: 115-117).

정보화마을 사업은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정보화마을 홈페이지, <http://www.invil.org>). 이에 따라 정보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행정자치부, 2001; 김유석·박영민, 2006: 3). 이러한 목표 하에 정부는 정보화마을을 시범조성하여 도시 및 농어촌 정보화의 표준화된 모델로 육성하고 표준모델을 지역의 특성별로 정보화 수요에 따라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서진완, 2015: 119).

정보화마을 사업은 7개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정보화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실행하였다. 둘째, 마을 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을정보센터에 PC, 빔프로젝터, 프린터 등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정보화교육 및 자유로운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가구별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PC보급률이 대상마을 가구 수 대비 70% 이상이 되도록 가구별로 PC를 보급하여 주민에게 사용권을 보급하였다. 넷째, 중앙의 대표 홈페이지와 마을별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정보채널 등의 정보컨텐츠를 구축하여 소득증대 및 마을주민의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정보생활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본이 되는 지역주민의 정보능력향상을 위해 정보화 마인드 교육과 콘텐츠 이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여섯째, 각 정보화마을이 자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마을에 1인 이상의 정보화지도자를 선정하여 리더를 육성하고 15명 내외의 주민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정보화마을 CI(로고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홍보간판, 홍보물제작 등에 활용하고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통해 정보화마을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한다(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4: 19-20).

정보화마을 사업은 2015년 현재 338개 마을에서 진행 중이며, 추진체계는 기획관리부분, 운영부분, 마을운영부분으로 나뉘는데, 기획관리부분은 안전행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사업운영부분은 마을운영지원과 중앙시스템 운영관리로, 마을운영부분은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와 마을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¹⁾.

1)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4), pp. 23-31 참고

이렇듯 정보화마을 사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계되어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마을운영회,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정보화마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를 시행중에 있다²⁾. 운영평가는 크게 세 가지 지표로 측정된다. 첫째는 정보격차해소 부문이다. 정보화기반환경, 정보화교육, 정보생활화로 구분하고 각 부문에 적합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는 지역경쟁력강화 부문이다. 2005년은 평가지표가 아닌 조사지표로 정성평가시에만 참고사항으로 활용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며 마을의 소득창출을 강조함에 따라 2006년부터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문이다. 주민참여와 운영자치화로 분류하여 측정되고 있다(서진완, 2015: 191-196).

이러한 지표들을 기반으로 측정된 운영평가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첫째, 전체 운영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마을 관계자들이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정보화마을 조성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보화마을 사업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마을위원회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에 따른 우수마을 포상, 부진마을 활성화 컨설팅 및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한 마을별 경쟁을 촉진하였고 평가지표 확산을 통해 향후 조성될 정보화마을의 자발적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운영실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서진완, 2015: 183).

특히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마을 및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이들 기관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반면 평가결과가 최하위에 포함된 부진마을은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운영평가 종료 후 2회 연속 또는 3년 내 2회 하위 5%에 속한 마을은 지정해제를 진행하였다³⁾. 이는 일부의 실적

2)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는 2005년 10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당시 자치정보화조합)에 평가업무를 위탁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실태를 평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4), pp. 181 참고. 각 항목별 지표는 이현정(2015), pp. 5 참고

3) 지정해제 마을이 선정된 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지정해제 마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앙차원에서는 관련 자금지원 중단 등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마을 지정해제에 따라 집기와 비품, 보급 PC 등을 자치단체에서 회수할 경우 회수에 따른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해제 된 마을은 홈페이지를 삭제하고 운영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하며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중단하되 이미 보급된 장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지정해제 된 마을의 마을운영회 역시 공식적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보화마을중앙협회에서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서진완, 2015: 203-204).

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는 마을로 인해 전체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다수의 마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활성화가 도저히 어려운 마을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해제를 통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자치정보화조합, 2007; 서진완, 2015: 202).

2013년 12월 말까지 지정해제 마을은 35곳(자진반납 16곳, 자진해제 19곳)이며 35곳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정비 사유를 정리한 결과 다음의 다섯 가지 -① 도시화, 고소득 등으로 인한 마을여건 변화, ② 전자상거래 실적 및 상품판매 가구 참여 저조, ③ 인근마을과 통합, ④ 주민의 지속운영 의지 및 개선노력 전무, 관심부족, ⑤ 운영주체 부족-로 정리할 수 있다(서진완, 2015: 204-205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선행연구의 검토

정보화마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단순히 정보화마을 사업의 의미 및 발전전략을 제시한 연구이다. 김유석·박영민(2006), 박영민(2007), 서진완·임진혁(2011)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연구이다. 고영삼(2004), 정우열(2004), 서진완(2005), 김유석(2007), 정우열·손능수(2007), 이팔진·이태영(2008), 김영건(2009), 임광현(2009), 최연태·오연주(2010), 이자성·김종숙(2011), 두정완(2012), 이홍재 외(2014)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는 사례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을 분석한 연구이다. 김원동(2005), 김동원·김부철(2006), 황봉기(2012)는 정보화마을 사업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방향 및 발전모델을 수립하였다. 황희영·김종호(2013)는 사례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문화기술지로 연구하였고, 김이수(2015)는 사례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공동체 활성화의 결정요인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대다수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연구들은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들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전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표 1> 최근의 정보화마을 관련 연구

연구	내용
전용식(2008), 박영민·서진완(2014)	정보화마을 사업과 사회자본과 연계하여 사회자본이 정보화마을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운영성과와의 관계를 연구
박영민(2014b)	정보화마을 사례를 대상으로 정부정책이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자본이 정부사업에 효과를 야기하는지를 연구

연구	내용
김구(2013)	정보화마을 사례를 통해 마을에서 지역정보화의 중요성을 재조명
박영민(2014a)	정보화마을 사례를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에 대해 연구
이홍재 외(2014)	2012년 정량평가 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개선된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
정창호·박치성(2014)	정보화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마을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색
진순손 외(2014)	정보화마을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박영민(2015a)	정보화마을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와의 관계를 모색
박영민(2015b)	정보화마을 사업을 대상으로 농촌지역발전 사업의 성과와 결혼이주여성 참여의 영향관계를 모색
박영민·서진완(2015a)	정보화마을 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주민참여 확대가능성을 모색
박영민·서진완(2015b)	비정보화마을 사업 변수와 정보화마을 사업성과의 관계를 분석

3. 정보화마을 사업의 영향요인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한 연구는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지만, 정보화마을 사업의 영향요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정보화마을 사업을 종속변수로 하여 정보화마을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와, 정보화마을 사업을 독립변수로 하여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귀결된 영향을 설명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연구들 즉, 정보화마을 사업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들은 정보격차해소, 지역경쟁력 강화, 마을공동체 강화라는 명확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세부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실패사태에 초점을 둔 분석이므로 정보화마을 사업을 종속변수로 하여 정보화마을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해보고자 한다.

<표 2> 정보화마을 사업의 영향요인

연구	영향요인
정우열·손능수(2007)	정보화마을 사업에는 다양한 체험과 주변관광을 포함하는 것이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전용식(2008), 박영민·서진완(2014)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자본 수준이 정보화마을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연구	영향요인
김이수(2015)	정보화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결정하는 요소는 공동체 참여 활성화, 공동체 중간조직의 활용, 리더십의 촉진임
박영민(2015a)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이 정책의 방향성을 변동시켜 궁극적으로 정책성과를 높였음
박영민(2015b)	마을주민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것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영향관계는 아니지만 결혼이주여성인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박영민·김미현(201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
박영민·서진완(2015b)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는 마을자체 보유자원, 타 개발사업 등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계없는 타 요인들의 영향이 중요함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자본, 마을의 보유자원, 타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먼저 사회자본은 학자들마다 정의를 각기 달리하지만 ‘사회적 연결망이나 기타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자들의 능력’을 의미하는데에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이현정, 2013: 29). 사회자본은 주민들간의 상호신뢰, 협력적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박영민·서진완, 2014: 39). 정보화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 협력을 요구하고 기본적으로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므로 마을주민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 간의 협력은 주민들 간의 참여, 교류 등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주민들이 이해타산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이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정보화마을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였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 협력, 주민들 간 상호 이해를 높여주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의 사회자본은 공공과 민간의 부족한 역량, 지원수준을 높여주고 정보화마을 사업의 향후 결과 및 각 마을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박영민·서진완, 2014: 56).

두 번째, 마을의 보유자원은 농촌에 존재하는 특정적인 환경과 공동체적 요소를 충족하는 것으로써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각 구성원에게 휴양적·심미적·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전인철, 2009). 그러나 농촌은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에 5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존재한다는 것과 결혼을 통해 한국농촌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인 존재한다는 것은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박영민, 2015b). 아울러 마

을의 자생조직의 유무 및 마을 특산품의 존재 등도 마을의 보유자원으로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박영민, 2015b; 박영민·서진완, 2015b). 특히 정우열·손능수(2007)는 정보화마을 사업이 특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마을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경험과 관찰이 이루어질 때,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조성할 때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정우열·손능수, 2007: 41). 이는 보유자원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매력물(tourism attraction)로 작용하기 때문이다(크리스 로젝, 2006: 225; 정수진, 2009: 112). 즉, 관광객들에게 농촌의 자원은 사람들이 보고 싶고 느끼고 싶어하는 유무형의 소재로 관광객의 체험적 측면에서는 개발을 통해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류나 재방문 동기·의욕을 충족시키고 교류활동을 하게 하는 목적물이 되기도 한다(전인철, 2009).

세 번째, 정보화마을 사업과 동시에 진행 중인 타 농촌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농촌마을들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과 병행 추진 중에 있다⁴⁾. 타 농촌개발사업과의 병행추진이 이루어질 때 물적·인적자원이 풍족해져 이것들이 마을 발전의 여유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연세대학교, 2014: 109; 박영민·서진완, 2015b) 이는 긍정적인 집적의 효과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이성우, 2006: 11).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추진주체별로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현재 정보화마을 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 조성 시 지원되는 인프라 구축 예산의 50%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중앙에 비해 마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운영과 관련된 지원에 있어서도 마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중앙정부와 마을을 매개하고 마을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역할(박영민, 2014a: 107) 즉, 마을지원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연세대학교, 2014: 1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이 정보화마을 사업의 지정해제를 겪은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등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4) 2013년 5월 기준, 357개 마을이 531개 마을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각 마을은 정보화마을 사업을 포함하여 평균 2.5개의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연세대학교, 2014: 109).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되어졌다. 자료수집은 현장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연구는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도, 신념, 태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응답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연구의 경우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지역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지역의 경우는 연구자의 지리적·시간적·비용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경기도 인근 지역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이현정, 2013: 220). 지역을 경기도로 한정하고, 앞서 논의한 지정해제 사유 중 ‘인근마을과 통합’의 사유를 제외한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마을 3곳-경기도 이천 a마을, 수원 b마을, 양평 c마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 조사대상지역 및 지정해제 사유

년도	구분	마을명	사유
2010년	지정해제	경기도 이천시 a마을	전자상거래 및 홈페이지 활성화 노력 저조
2011년	자진반납	경기도 수원시 b마을	급격한 가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운영기반 약화 예상
2012년	지정해제	경기도 양평군 c마을	전자상거래 부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미흡, 운영주체 부재

주: 서진완, 2015: 204-205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지역 거주자 중 정보화마을 사업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지정해제가 될 때까지 정보화마을 사업에 참여하였던 정보화마을 위원장, 센터 운영자, 총무, 주민 등을 중심으로 이들 당사자나 당사자 주변 관련인물들과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각 마을별로 2-3차례 수행하였고 부족한 자료들은 전화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⁵⁾.

5) 인터뷰 내용은 응답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완전한 인터뷰를 반영하였다. 타 연구를 인용한 인터뷰는 출처를 밝히고 동 연구자가 직접 한 인터뷰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2. 사례지역의 특성

a마을은 붉은기가 도는 벼품종의 이름을 따와 마을이름을 지었으며 김씨가 다수 거주하는 집성촌이다. 도심근교에 위치하여 이전부터 가난한 마을은 아니었다고 한다. 2002년에 농진청의 테마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정보화마을 사업을 유치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 관리자는 마을주민이 돌아가면서 맡아보았는데, 급여는 군에서 9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나머지는 마을기금으로 지급되었다. a마을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은 2007-2008년에 활성화 되었으며 당시 TV에 약 56회 방영되었을만큼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테마마을 사업과 정보화마을 사업 위원장들 간 경쟁으로 이후에는 두 사업 모두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는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성과를 서로에게만 돌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정보화마을 사업이 중단되었다.

b마을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며, 주변에 낙락장송이 무리를 이루어 이에 따라 마을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1983년에 교육원 연수를 받기 위해 상경한 지방공무원들의 수요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마을로 전체 약 43가구로 구성되었다. 근방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세무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해 있어 대다수 주민들은 연구원 공무원들의 하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말부터 전체 43가구가 하숙협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였고 2004년에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유치하여 하숙협회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사업에 참여하였다. 특히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관광(하숙)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교육생 약 1만여명, 매출액은 연간 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정보화마을 사업 관리자는 외부 사람으로 도청에서 전액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후 지원금이 없어짐에 따라 정보화마을 사업 총무(하숙협회 총무)가 사업관리자 일을 담당하였다. 2010년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모든 연수원이 이전함에 따라 하숙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자 정보화마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c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4개의 리가 합쳐진 마을이다. c마을은 가파른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산촌마을로, 산촌마을의 특징에 따라 교통이 불편하고 예전부터 부유한 마을은 아니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 중 80%이상이 강원도 홍제, 인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며 이에 각성바지 마을이다. 2003년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정보화마을 사업을 진행하였다. 관리자 급여는 처음에는 군에서 전액 지급을 하였다가 지원 중단 후에는 마을기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 후에는 무급자원봉사로 진행되어졌다.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체험마을 1개(농촌체험마을 사업), 개인이 운영하는 체험마을 사업이 3개가 있었으며 정보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마을을 통한 소득증대를 강조하자 더 이상의 체험마을은 만들 수 없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화마을 사업을 중단하였다.

IV. 사례지역의 정보화마을 사업 분석

1. a마을의 정보화마을 사업

먼저 사회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마을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은 2005년에 당시 이장이 정보화마을 사업 위원장을 겸하며 시작되었다. a마을에는 2002년부터 추진되어온 농진청의 테마마을 사업이 있었다. 테마마을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5년에 정보화마을 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당시 이장인 A가 위원장을 맡았고 마을주민을 간사로 고용하며 진행되었다.

a마을은 이전부터 이웃이 모두 가족인 씨족마을 특성상 협동, 호혜성 등이 높았다고 한다. 특히 마을일에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마을 분위기에 따라 마을에 사업이 들어오게 되었다.

“새마을운동 사업을 할 때를 회상해보면, 마을 앞 개울에서 자갈을 퍼와서 길을 만들었고 길 기부도 공짜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테마마을이나 정보화마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민박을 받아야 하니까 땅이 많이 필요했는데 주민들한테 땅 기부해달라고 하니까 기부도 많이 받았어요. 주민설득도 잘 되었어요. 토지 옆 산도 재경향우회에게 기부 받아 현재까지 사용 중이에요.”(A 인터뷰)

a마을 주민들은 한가할 때 마을회관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등 여타 다른 농촌마을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화투를 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등 종종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마을에 있어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화마을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마을정보센터에 모여 PC, 채팅, 이메일, 휴대폰 이용 등을 배우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점점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졌다고 한다. 서로 휴대폰 이용기술을 알려주고 문자를 주고받는 등 주제와 놀이가 달라지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이웃마을 주민들도 센터에 와서 구경을 하고 방송국에서도 성공사례로 취재를 오면서 마을 분위기는 한층 좋아졌다고 한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정보격차 해소에서 소득증대를 강조하게 되자 마을에 체험마을 사업이 커지게 되었다. 체험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모두 마을 내에서 수급을 하였다. 특히 테마마을 위원장, 정보화마을 사업 위원장(이장), 정보화마을 관리자, 테마마을 사무장, 부녀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2007-2008년 사업이 확장되며 마을에 문제가 하나씩 생기게 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 간의

갈등, 56차례 방송국의 촬영이 이루어지고 성공마을 사례로 선정되며 타 마을이나 군청에서 방문을 하게 되자 이를 본인들의 성공이라 여기는 리더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보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마을을 진행하며 외지 사람들의 출입이 증대하자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고 개울이 더러워지는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불편함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특히 변화를 싫어하는 노인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집성촌인 특성에 마을주민 모두가 친인척 관계이므로 마을의 공동 사안이나 문제에 노인들의 의견이 큰 힘을 갖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위원장·이장과 변화를 싫어하는 주민들 특히 노인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원장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마을사업과 마을을 분리하여 마을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사업으로 인한 불편과 마을의 공공재를 활용하는 대가로 마을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결국 마을단위 사업이기보다는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공을 정보화마을 사업 위원장(이장 겸직)과 테마마을 사업 위원장이 본인들에게 돌리며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위원장 간의 갈등은 정보화마을 관리자와 테마마을 사무장 간의 갈등으로 전파되어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자의 잦은 변경을 초래하게 되었다.

“위원장들끼리 사이가 안좋으니까 간사들도 사이가 안좋았어요. 정보화마을 사업 관리자가 B가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마을 사업에 참여하더라니까. 간사들이 자주 바뀌어서 지표정리가 잘 안되었고 지표를 서로 주고받지를 않았어요.”(A 인터뷰)

두 번째, 마을의 보유자원을 살펴보면, a마을은 마을 고유의 대표적인 자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쌀농사 지역으로 왕에게 진상하는 진상미 중에 밥맛이 가장 좋은 쌀의 생산지라는 것, 태종의 아들 양녕대군이 귀향 와 있는 동안 그의 식읍지였다는 것, 양녕대군이 마셨다고 해서 생긴 양샘, 양녕대군이 쉬었다는 무우정, 연자방아와 물레방아 터가 있으며 방아민요가 전해진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이 양녕대군을 중심으로 모심기, 벼 타작, 양녕대군 유적지 탐방, 활쏘기, 방앗간 체험 등이 진행된다(정수진, 2011: 327). 사실 양녕대군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은 2002년 테마마을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문화연구소의 컨설팅을 통해 선정되었지만 실제 운영된 프로그램은 테마마을과 별 차이 없이 시행되었다. A형: 참새와방앗간, 미꾸라지잡기, 활쏘기, 목장체험, 천연비누만들기, 인절미만들기/B형: 참새와방앗간, 활쏘기, 미꾸라지잡기, 트랙터트랙킹, 열전사염색 등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선정된 테마와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방문객의 기호, 방문객의 안전, 실제 운영주체의 유무, 실행가능성 등에 따라 타협·조정을 거치며 수정이 이루어졌고 마을 고유의 전통문

화와 자원은 사업의 실제적 운영목적인 방문객 수 및 수익률에 따라 다른 마을사업들과 유사하게 변경되어졌다.

“물론 한 두개의 컨설턴트가 20여개 이상의 마을을 만드는데 개입되기도 하지만 일단 사업이 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 그런 프로그램은 이웃 마을에서 당장 따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유사성은 당연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B 인터뷰, 정수진, 2009: 113)

또한 50대 장년층의 참여는 마을사업이 혁신적이고 변혁적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들은 마을일 보다는 개인 농사 및 사업에 매달렸고 집성촌인 특성으로 마을회의에서도 이들의 의견은 차단되며 회의가 끝날 때쯤이면 장년층은 모두 자리를 뜨고 어른들만 남았다고 한다.

세 번째, 타 농촌개발사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했듯이 a마을에는 2002년부터 테마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2002년에 테마마을 사업이 각 도마다 1개씩 선정되며 시작되었다. a마을 옆 마을이 테마마을로 선정되었으나 선정과정 중에 주민들간에 의견충돌이 생겨 어부지리로 a마을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당시 이장인 A는 시내에서 타사업에 종사하던 B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B가 테마마을 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테마마을 사업은 a마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마을사업으로 테마마을 사업이 시작되며 2005년에 정보화마을 사업이 진행되었다.

a마을에서 2007-2008년은 주민들에게 최고 번성기로 기억이 된다. 마을사업이 안정을 취하며 인적·물적자원이 마을의 개발을 위한 여유자원으로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동시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기간이었기도 하였다. 우선 주민들간에는 의심이 늘어갔다고 한다. 체험마을에 참여한 주민들은 체험객 수가 가시적으로 늘고 있지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는 소득은 눈에 보일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위원장을 의심하고 총무를 고용해서 회계를 맡겼음에도 계속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였다고 한다(정수진, 2011: 332).

“돈이 개입되니까 투명치 못한 관리로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싸움이 잦았어요.”(C 인터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거리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마을자원을 쓰게 되는데 그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아보이지 않는 거죠.”(A 인터뷰)

6) 방문자 수를 보면, 2002년 850명, 2003년 4,108명, 2004년 3,498명, 2005년 4,852명, 2006년 6,208명, 2007년 7,324명, 2008년 5,348명, 2009년 5,849명, 2010년 7,531명으로 집계된다(정수진, 2011: 326).

하지만 이러한 마을의 변화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마을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인터뷰가 현재의 농촌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농약 소리나면 다 구경나갔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보는데 방해된다고 싫어 해요. 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다 깨졌어요. 지금은 모심고 탈곡하는 것도 다 혼자 해요. 짜장면 시켜 먹어가면서...지금은 그게 누구 논인지도 몰라요. 기계로 하니깐. 품앗이, 사랑방 다 없어지고 공동체는 안 움직여요. 모든게 다 돈으로 계산이 돼요. 지금은 조금만 능력 떨어지면 여기서도 폐인돼요. 옛날에는 병신도 살고 바보도 같이 살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으니까. 하루 품값도 주고. 지금은 똑똑한 사람도 조금만 능력 떨어지고 때 놓치면 그렇게 돼요.”(B 인터뷰)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개발사업들 간의 혼동이 초래되었다고 한다. 즉 테마마을 성과지표와 정보화마을 성과지표가 달라 성과를 어느 사업지표에 넣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이는 각 사업 위원장들 간의 좋지 않은 사이, 관리자들 간의 좋지 않은 사이까지 겹치면서 서로간에 지표를 주고받지 않는 것을 물론 결국에는 두 사업모두 지표정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테마마을과 정보화마을 지표를 달리 하려 하니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마을직판장까지 있어서 판매도 잘 되고 관광객들에게 직접 파는 것들도 있고 택배로 팔기도 했는데 이것을 어느 지표에 넣어야 하는지 그걸로 싸움이 자주 생겼어요.”(A 인터뷰)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마을에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기자재, 관리자 월급 등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그에 맞는 성과는 물론 빠른 결과의 산출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지자체의 공직 시스템으로 인해 사업의 책임소재는 마을 및 사업관리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사업의 성과와 운영과정에서 노정된 어려움들은 주민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다(정수진, 2011: 445-336). 나아가 지자체는 타 지자체와의 실적경쟁에 따라 새로운 마을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반이 있는 마을에 지원을 해야 빠른 산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성과가 높은 마을에 후속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제안되어졌다⁷⁾.

7) a마을은 테마마을-명품화마을로 명칭변경(농촌진흥청), 정보화마을(행정자치부), 팜스테이마을(농협), CEO육성사업(경기도), 색깔있는마을(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선정되었다.

“거액의 사업지원금을 다시 제안했다. 담당 공무원은 마을회의에 참여하여 주민들을 설득했고 전위원장과 함께 체험프로그램에서 손을 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다시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다시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소집하여 사업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추대하였다.”(B 인터뷰, 정수진, 2011: 338).

그러나 투자가 많이 된 마을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투자만큼 부담감도 크게 다가옴을 알 수 있다. 투자 이상의 성과를 원하는 지자체의 요구와 경제적인 성과가 바로 보이면 적극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쇄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투자되는 만큼 잘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투자가 많이 된 마을이라는 주위의 부러움 뒤에는 앞길이 막막합니다.”(B 인터뷰, 이천저널, 2007.8.10)

“농진청과 행자부에서 5억원을 지원받는다든 소리에 주민들의 기대치는 무척 컸다.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보니 시설 투자와 프로그램 구축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농가소득에 도움은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지속적인 체험시설을 개발하고 순환시켜야 하는데 자금은 언제나 부족한 실정이다.”(B 인터뷰, 이천저널, 2007.8.10)

2. b마을의 정보화마을 사업

첫째, 사회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마을은 주변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무공무원교육원 등 공무원교육기관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교육원 연수를 받기 위해 상경한 지방공무원들의 하숙 수요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된 곳이다. 1980년대 초에는 동네 몇 집에서 시작했던 하숙이 2004년 정보화마을 사업이 시작되며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따라 절정기를 이루어 연매출 5억원, 연인원 1만여명이 이용하는 등 하숙마을로써 명성을 얻었다.

b마을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1980년대 이전에도 농업보다는 도시권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였지만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또한 집성촌이 아닌 각성바지마을이어서 문중의 힘이 크지않아 모든 주민들이 친하며 평등하게 생활하였다고 한다. 또한 하숙의 특성상 남성들은 밖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하숙생을 받거나 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었고 주로 여성들이 하숙 치는 일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1980년대에 들어 수요가 늘어나자 전체 주민들이 남는 방에 하숙을 하거나 남는 땅에 집을 지어 하숙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넉넉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하숙 수요가 커지자 몇 가구에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자 주민들 간에 불만이

속출하게 된다. 이에 1980년대 중반에 마을회의를 통해 협회를 만들자는 중지가 모여져 43가구 전 주민의 동의 하에 회장을 뽑고 운영비를 모아 하숙협회를 운영하였다. 협회에서는 모든 가구가 동등하게 하숙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구에 하숙생 몇 명이 언제까지 이용할지 일지를 쓰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분쟁없이 하숙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하숙협회에서는 타지에서 건어물을 대량으로 떼와 43가구에 배급하고 이익금으로 정보화마을 운영비 및 관리자 월급을 지급하였고 일년에 한번씩 노인정에 식사를 대접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집에는 오고 어떤 집에는 안오고 하잖아요. 방이 차고 안차고에 따라 분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숙협회가 있다보니 방을 치다가 남으면 다른집에 주고 서로 채워줄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86년도에 왔으니까 그때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농사짓는 마을이 아니고 하숙치면서 먹고 살고 자식들 가르치고 했어요.”(정보화마을 사업 총무 인터뷰)

하숙 특성상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므로 주인들의 손맛과 친절이 중요하였는데, 이는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과의 사회자본을 형성시켜 하숙집 주인은 하숙비를 인상하지 않고 하숙생은 다음 교육 때 다시 찾아오거나 다른 교육생들에게 추천을 해줌으로써 호혜성을 만들게 된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처음으로 찾았던 한 전남지역 공무원이 4급 서기관이 되고 3급으로 승진해 찾아오면서 지금은 가족과 다른없는 사이가 됐다. 집집마다 뜻뜻한 사연이 많다. 7년째 하숙비를 인상하지 않았다.”(A, 매일경제, 2008.2.9.)

“하숙생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새벽시장에서 장을 봐 상에 올리고 있다. 우리집은 오신 분이 또 오고 홍보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주시기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빈방이 없다.”(B, 오마이뉴스, 2008.10.17)

또한 정보화마을 사업 센터를 하숙객들에게 개방하여 교육 후 센터에서 자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집마다 한 대씩 보급된 컴퓨터로는 하숙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숙객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하숙객들이 센터를 이용하며 센터 운영이 더욱 활발해 졌다고 한다.

둘째, 마을의 보유자원을 살펴보면, b마을은 수원시 북부에 위치하는 관문으로써 정조대왕의 얼이 담긴 200여년 역사를 상징하는 지지대 고개와 경기도 기념물인 노송지대에는 예부터 보존되고 있는 낙낙장송들로 인해 경관이 우수하며 수원갈비또한 이 지역의 명물·특산

품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b마을이 정보화마을 사업을 시작하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나, 관광이 목적이 아닌 교육에 따른 숙박을 목적으로 마을에 찾아오는 것이기에 이를 통해 큰 성과를 올렸다고는 할 수 없다.

b마을은 위와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가졌으나 무엇보다 4개의 공무원 교육기관이 이 마을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큰 보유자원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인해 마을에 소득이 생겼고 자발적으로 협회를 만들어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활용해 나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 지방이전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며 점점 하숙객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마을에 하숙객들이 없어지며 마을의 존재자체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셋째, 마을의 타 농촌개발 사업이다. b마을에는 타 개발 사업이 없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시는 2004년 b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지정하며 4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83대의 컴퓨터를 제공하고 마을회관 2층에는 센터를 짓고 센터에는 컴퓨터, 프린터 등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에 마을 노인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도 함께 운영하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하숙객들도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정보화마을 센터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원이 이전을 하면서 하숙객들이 없어지게 되자 주민들은 지자체에 지원 혹은 컨설팅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납한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보화마을 사업 유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들 살림만 하던 사람들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우선 손님이 없으니까요. 대체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수원에 많이 건의를 드려도 정부 시책이라고만 해서 우리는 그냥 따랐죠.”(정보화마을 사업 총무 인터뷰)

3. c마을의 정보화마을 사업

먼저 사회자본을 살펴보면, c마을은 4개의 리가 합쳐진 마을로 2004년 정보화마을 사업이 시작되기 전 2003년부터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업에는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하였고 이 주민들이 그대로 정보화마을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c마을은 80%이상의 주민이 강원도 홍제, 인제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이전부터 반상의 차이나 빈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 모두가 가난했기에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진행했던 과정과 1990년대 말 동네에 고른공

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새마을운동을 진행했을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와 마을일에 참여하였고, 고론공원 유치사업 때에도 동네주민이 무상으로 땅을 기증하고 같이 지면을 고르게 하였으며 면과 18개 리에서 공원에 필요한 나무를 기부해서 공원이 완성되었다.

“새마을운동 할 때에는 정말 주민들이 협동하고 자조하고 아주 열심이었어요. 눈오거나 비와도 다 같이 치우고 도와주고 그랬지요. 1990년대 고론공원을 만들었어요. 원래 하천부지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공원을 만들자고 했어요. 분명히 도외지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동네로 즐기러 올 것이다 싶어서요. 하천부지 경작한 사람들이 포기하고 기부했어요. 그리고 윗동네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 만들면서 나온 돌을 공원에 메워 달라고 했죠. 면장이 도와주고 18개 리에서 이장들이 회의해서 한 마을에서 나무 3그루씩 기부해서 공원이 조성되었어요. 그 밖에 동네 가꾸기는 주민들이 한거죠.”(정보화마을 위원장 인터뷰)

이 후 2004년에 마을에 정보화마을 사업이 시작되며 가난했던 마을에 활기가 돌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들어온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들로 인해 노인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회관에 모여 서로 컴퓨터를 알려주고 본인들이 알게 된 기능을 서로 공유하면서 센터가 주민들 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c마을 또한 정보화마을 사업 전에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간의 사소한 싸움이 많았었는데 센터가 운영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 정보화마을 사업 관광차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방송국에서 여러차례 방문하자 주민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다.

“이전에는 화투만 했어요. 그러니까 2-3일에 한번씩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고 싸우질 않았어요. 컴퓨터를 통해 동질성을 이루게 되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니까요. 특히 귀촌한 사람들은 회관에서 얘기할 꺼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게 되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하고 그랬어요.”(정보화마을 위원장 인터뷰)

“우리 마을이 예전부터 가난했어요. 전기도 늦게 들어오고 버스도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 산촌마을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하러 오고 베트남 장관도 왔다가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에게 열심에 대한 보답처럼 느껴졌어요.”(정보화마을 위원장 인터뷰)

그러나 이러한 마을의 분위기는 마을의 단편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c마을의 전체적인 변화상은 앞서 논의한 a마을의 특성과 같다.

“언젠가부터는 돈 아니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요. 관에서 기계를 대주고 기름값도 보조해주고 하니깐 달라진거 같아요. 지금은 농경이 기계화 되었잖아요. 두레나 품앗이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게 아니라 그냥 더불어 한건데 그게 많이 퇴색되었어요. 돈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게 돈이랑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과 생활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특별한 음식을 하면 이웃 간에 나누어 먹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고 누구 생일이나 제사하면 온 동네가 나누었는데 지금은 100프로 다 없어졌어요.”(정보화마을 위원장 인터뷰)

달라진 마을의 분위기가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나 정보화마을 사업의 포인트가 정보격차 해소에서 소득증대로 변경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사업참여는 곧 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골인심이 달라진게 돈 때문인데 사업의 중심이 소득증대로 가다보니 참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운영비, 관리자 월급 이런게 다 돈인데 참여를 할수록 의심을 하게 되니까 어렵죠.”(정보화마을 위원장 인터뷰)

둘째, 마을의 보유자원을 보면, c마을에는 2000년도부터 마을축제가 있어왔다. 매년 4월마다 양평군에서 약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축제가 열려왔다. 약 40여가지 이상의 농촌체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도시민들을 유치하며 마을을 알리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창출해 온 것이다.

그러나 몇 해 전 선거법 위반으로 축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4월에 열리는 특성 상, 관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불법이며 또한 적자운영으로 인해 감사에 걸리게 된 것이다⁸⁾. 이에 따라 현재는 마을축제가 없어졌고 이를 주민들은 아쉬워하고 있지만 다시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8) 2005년 3월 14일 양평뉴스에 따르면 양평군의회는 2004년 12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가수나 불러다가 축제를 하는 글자 그대로 전시행정이며 소모성 축제로 문제가 있다. 군이 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 마을행사의 경우 행사추진위의 과도한 행사 준비로 행사 종료 후 1천만원의 적자운영으로 드러나 추진위원장이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행사의 내실을 위한 개선점 모색이 요구된다는 비판이 나왔다(내일신문, 2005.3.4).

셋째, 타 농촌개발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c마을은 4개 리가 합쳐진 마을로 c마을에는 개인이 하는 체험마을 사업체 3개, 마을전체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농림부 주도의 농촌체험마을 사업 1개, 총 4개의 체험마을 사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3개의 개인 사업체 중 1개의 개인농촌 체험마을 사업은 운영이 매우 활발하며 연 소득 30억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처음에 정보격차 해소를 강조했을 때 마을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회관에 모여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센터에 모두들 모여면서 마을 분위기가 화목해진 것이다. 그러나 소득증대로 도약하고 체험마을 사업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있던 체험마을 사업과 정보화마을 사업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정보화마을 사업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어려워지며 새로운 마을사업이 필요하였는데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체험마을 사업에서 나온 소득과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나온 소득을 명확히 배분하기 어렵고 지표도 구분하기 애매했으며 체험마을에서 나온 소득을 정보화마을 사업에 쓰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마을에 체험마을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 간에 옳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화마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처음에는 정부가 100프로 지원을 했다가 농가소득으로 바뀌면서 자부담을 시키더라구요. 자부담을 시키니까 사업체를 만들어야 돈을 만들어 관리자든 뭐든 실비를 낼 수 있게 되잖아요. 월정액도 지급을 해야 하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마을은 4개리가 합쳐졌고 한 개의 사업체는 체험마을이 아주 잘 정착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 전체가 운영하는 사업도 나름 잘 되고 있구요. 체험마을 돈이 여기로 올 수 없죠. 그럼 또 다른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어려웠어요. 그냥 하고 있는 체험마을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걸 반납하는게 낫겠다 싶었지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갈등이 오기 전에 반납을 한거죠. 반납하기 싫지만 동네가 편안하게 가려면 반납을 하는 수 밖에 없었죠. 자꾸 싸움이 나는 것 같고 주민을 들로 만드느라잖아요.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 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정보화마을 위원장 인터뷰)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살펴보면, c마을이 2003년 농림부의 체험마을로 선정되자⁹⁾ 이듬해 2004년 행자부의 정보화마을 사업에도 선정되어진다. 앞서 a마을처럼 c마을도 타 지자체와의 실적경쟁에 따라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마을에 지원을 해야 빠른 산출이 가능하

9) 양평군은 2003년 c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자 14억원을 들여 마을 민박시설과 야영장을 정비하는 한편 숲가마와 사금터, 물레방아를 복원하고 자생식물 식재원과 잔디광장, 등산로, 숲문화 체험센터를 조성했다(연합뉴스, 2004.3.23).

므로 c마을이 연달아 두 개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다. 게다가 c마을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촌체험관광 마을, 팜스테이 마을로 매년 선정되는 등 경기도와 양평군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매년 5,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마을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사례 마을의 정보화마을 사업 분석

	a마을	b마을	c마을
사회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씨 집성촌. 문중의 영향력 높음 - 마을 갈등을 문중 어른들이 해결(어르신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 - 사업참여로 소득증대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하숙 수요에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음 - 1980년대에 전주민 동의하에 하숙협회 운영 - 회비, 기금 등 민주적 운영 - 하숙집과 하숙객 간의 신뢰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의 80%이상이 강원도 이주민. 각성바지 마을 - 정보화마을 사업으로 주민들 간의 화합 증대
마을의 보유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원, 특산품 등이 존재하나 방문객의 기호, 안전, 실제 운영주체의 역량, 실행가능성 등에 따라 조정 - 타 마을 사업과 유사하게 변경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인해 마을 형성. 자체로 보유자원 - 교육기관 이전으로 보유자원이 없어지자 마을의 존재자체가 없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의 마을축제가 있었으나 4월에 열린다는 특성, 적자운영으로 없어짐
타 농촌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마을 사업(농진청) 존재 - 성과경쟁으로 인해 지표, 성과 공유 안됨 - 사업으로 인한 소득증대는 주민들간의 화합을 멀어지게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운영하는 체험마을 사업체 3개,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농진청) 1개 등 총 4개 사업체 운영 중 - 성과경쟁으로 지표, 소득 구분 어렵고 또 다른 체험마을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와의 실적경쟁에 따라 어느정도 기반이 있는 마을에 지원을 늘림 - 주민들이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은 부담감이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원 이전 후 어떠한 지원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홍보 및 지원 계속

V. 결론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정보화마을 사업의 지정해제를 겪은 마을에서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부족한 역량, 지원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집성촌이며 어르신들의 영향력이 큰 a마을에서는 주민들 간 협동은 잘 이루어졌지만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에 변화와 갈등을 주저하는 어르신들이 개입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운영되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하숙수요에 따라 형성된 b마을과 각성바지 마을인 c마을은 주민들의 권한이나 기회가 동등하여 회비나 기금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서로간의 조율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잘 이끌어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자본 중 강제적 성격이 강한 규범의 영향력이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영민·서진완(2014)의 주장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모든 마을에서 사회자본은 실제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화합과 친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격차 해소를 줄이고자 시행된 정보화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컴퓨터 활용이나 인터넷 이용을 위해 센터에 모이면서 사랑방과 같이 공동의 주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에는 부합하였지만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변화상은 공동체성을 한시적으로 촉진시키기는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마을의 보유자원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세 마을 모두 마을 고유의 보유자원을 개발자원으로 활용하였지만 각 마을마다 각기 다르게 활용하고 있었다. a마을의 마을고유의 전통문화와 자원은 실제적 운영목적에 따라 다른 마을과 유사하게 변경되어 활용되어짐으로써 '고유'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c마을은 정치적 이유로 사장되었으며, b마을은 보유자원이 없어짐에 따라 마을의 존재자체도 함께 없어지게 되었다. 마을고유의 보유자원은 특화사업과 연계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질 때 사업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자원이 없어지게 될 경우 혹은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마을의 존재이유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 혹은 대체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마을 사업 이외에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 농촌개발사업은 마을에 인적·물적자원을 풍족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공유 불가능, 사업간 경쟁 등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 c마을에는 정보화마을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타 농촌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타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개발기반이 다져진 후 정보화마을 사업이 시작 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마을 사업이 마을에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타 사업과 정보화마을 사업의 시행목적이나 프로그램 등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 사업과 유사하게 소득증대, 체험마을 사업 등을 시행·강조하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소득배분, 지표배분 등 각종 성과 배분에 따른 어려움과 위원장들 간의 갈등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병행추진에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넷째, 중앙정부와 마을을 매개하고 마을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박영민, 2014a)는 실제로는 타지자체와의 실적경쟁에 따라 어느정도 기반이 있는 마을에 투자 및 우선지원을 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어려움을 살피지 않고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마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특성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투자만큼의 부담감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투자 이상의 성과를 원하는 지자체의 요구와 경제적 성과가 바로 보이면 적극참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쇄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각 마을마다 각기 다르게 작용하여 사업의 성과에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근대화의 영향으로 바뀐 농촌의 상황 및 분위기는 이러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근대화의 영향으로 소원해진 주민들 간의 관계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교육을 통해 다시금 화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득증대 사업, 체험마을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소득이 증대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경쟁이 생기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문제점들이 마을에 생겨나게 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은 마을의 개발동력으로 작동하나 무조건적인 지자체의 지원은 주민들에게는 기대치를 높이게 되고 마을지도자에게는 부담감을 불러일으켜 성과 우선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실패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한 사례연구들은 성공사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35개 마을이 지정해제 되었음에도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진 것이다. 성공사례 연구는 사업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정보화마을 사업을 배우기 위해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벤치마킹단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패사례 연구를 통해 어떤 점이 문제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짚어보아야 하는지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민, 지도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연구들과는 다른 실제적이고도 현장감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문헌연구를 통해 보충함으로써 다른 연구들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3개의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사례연구에서 직면하는 '많은 변수와 적은 사례의 문제(Lijphart, 1972)'에 직면할 수 있다. 적은 수의 사례연구는 여타 모든 변수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례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적은 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만큼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해 맥락의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이현정, 2013).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잘 숙지하여 보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영삼. (2004), “정보화시범마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울산지역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8(3): 343-364.
- 김구. (2013), “마을에서 지역정보화의 역할 재조명: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국 지역정보화학회지, 16(4): 1-25.
- 김동원·김부철. (2006), “정보화마을의 성공요인을 통한 발전모델의 수립: 경상북도 두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1-30.
- 김영진. (2009), “농촌 정보화 마을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18(2): 83-109.
- 김원동. (2005), “정보화마을 사업의 정책적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정보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5(1): 7-57.
- 김유석. (2007),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유석·박영민. (2006), “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조성목적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김이수. (2015), “정보화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적 연구: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주민들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1): 210-227.
- 두정완. (2012), “정보화마을의 운영현황과 합리화 방안: 경상남도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4(4): 39-58.
- 박영민. (2007), “지역정보화사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논집, 7: 37-53.
- 박영민. (2014a),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 현대사회와 행정, 21(1): 97-118.
- 박영민. (2014b), “농촌지역 사회자본 형성과 정부정책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8(2): 267-292.
- 박영민. (2015a),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성과와의 관계: 정보화마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19(3): 145-176.
- 박영민. (2015b), “농촌지역 발전사업의 성과와 결혼이주여성 참여의 영향관계: 정보화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3): 1-27.
- 박영민·김미현. (2015), “정보화마을사업 활성화와 지방정부 역할 간 영향관계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 학술대회자료집.
- 박영민·서진완. (2014), “사회자본과 정보화마을사업 운영성과의 관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3): 35-60.

- 박영민·서진완. (2015a),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에서 주민참여의 확대가능성 모색방안 연구”, 정보화정책, 22(2): 35-56.
- 박영민·서진완. (2015b), “비 정보화마을사업 변수와 정보화마을사업 성과의 관계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87-111.
- 서진완. (2005), “정보화마을사업의 딜레마와 방향성의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95-114.
- 서진완. (2015), 지역정보네트워크, 정보화마을 그리고 지역발전, 서울: 대영문화사.
- 서진완·임진혁. (2011), “정보화마을사업의 의미와 재평가: 지역정보네트워크사업과 비교적 관점에서”, 14(4): 91-110.
-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4), 정보화마을 13년사.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정보화마을 특성별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성우. (2006),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제155회 월례세미나 주제발표문.
- 이자성·김중숙. (2011),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상남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105-128.
- 이팔진·이태영. (2008), “IT 기반 INVIL-BSC 모형을 이용한 정보화마을 성과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4): 109-131.
- 이현정. (2013), 『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의 역동성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현정. (2015), “정보화마을의 실제: 반딧불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행정』, 11: 1-24.
- 이홍재 외. (2014),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 관한 고찰: 2012 정량평가 모형 및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1): 73-92.
- 임광현. (2009), “정보화사업평가: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4): 141-170.
- 자치정보화조합. (2005),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및 활성화 방안.
- 전용석. (2008), “정보화마을의 사회적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학회지, 9(2): 63-77.
- 전인철. (2009), 농촌체험마을의 자원활용과 마을계획 방법.
- 정수진. (2009), “농촌관광과 민속학 연구 재고: 이천 자채방아 마을 사례로부터”, 농촌관광과 민속학 연구, 13: 95-120.
- 정수진. (2011),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농촌관광과 민속 연구”, 한국민속학, 54: 311-342.
- 정우열. (2004), “농촌마을의 정보화와 농촌의 변화: 정보화마을의 사례”, 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 정우열·손능수. (2007), “정보화마을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 경북지역의 6개 정보화마을을 중심

- 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0(3): 19-43.
- 정창호·박치성. (2014), “정보화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정보화마을 간 자매결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3): 87-109.
- 진종순 외. (2014),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방안 연구”, 국가정책연구, 28(2): 1-25.
- 최연태·오현주. (2010), “정보화마을 웹사이트 이용도 분석 및 활용도 제고방안: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행정자치부. (2001), 『정보화마을 조성계획』.
- 황봉기. (2012), “정보화마을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강원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4): 47-70.
- 황희영·김중호. (2013), “정보화마을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경상북도 정보화마을의 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373-408.
- Lijpart, A.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3): 682-693.
- 내일신문, 2005.3.4. 전국 1000개 축제로 예산·행정 낭비.
- 매일경제, 2008.2.9. 25년 전통, 수원 노송하굿마을로 오세요.
- 연합뉴스, 2004.3.23. 산촌체험으로 각광받는 양평 향토마을.
- 오마이뉴스, 2008.10.17. 고향이 정이 듬뿍 담겨 있는 하숙마을.
- 이천저널, 2007, 8.10. 분얼과 개발로 흩어진 민심을 모아 도시민들이 되찾는 전원마을로 만들자.

이 현 정: 고려대학교에서 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의 역동성 비교연구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13.2), 현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개발, 새마을운동, 비교행정, 복지정책이다. 최근 논문으로 “에티오피아의 참여적 개발: 농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2015)”, “ACPS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진주의료원 폐업사례를 중심으로(2015)”, “Birkland의 사건중심정책변동 모형에 따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2016)”가 있다(tone0903@hanmail.net)

